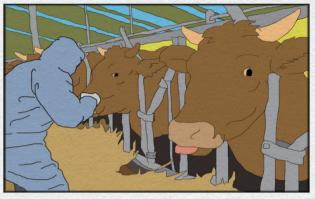


10년 전 EBS 기술인협회 워크숍. 워크샵 일정을 계획하고 나니 갑자기 전국에 구제역이 창궐하였고 매스컴에서는 연일 구제역의 발생경로를 지도로 만들어 보도하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계획한 워크샵 장소가 구제역 사전 방역 지역이었습니다.





고민고민 끝에 농장 사장님의 구제역과 관련없다는 말을 믿고 워크숍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찜찜한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농장 사장님의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푸짐한 고기 파티에 우리는 모두 행복해 하며... 술과 함께 워크샵의 밤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자 한명 . .두명 흐느적 거리며 모두들 취침 전용방으로 모여 들었고 나또한 정신을 잃고 쓰러져버렸습니 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을 켜고 커다란 주전자를 들고 들어오는 인기척 ... 평소에는 인자하고 과묵하신 선배님. 가끔 술이 선배님을 변신시키곤 하는데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정작 막걸리 선배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잘 자고 일어났다는... 우리보다 멀쩡했다는...